

미주 자유무역협정과 칠레의 대안사회운동 -공정무역을 위한 경제 NGO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이남섭(한일장신대 인문사회과학부)**

- I. 서론: 연구의 목적과 방법
 - I.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I.2. 연구의 이론 및 방법 그리고 선행연구검토
- II. 민주연합정부의 대외개방정책과 FTAA
 - II.1. 민주연합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의 특징
 - II.2. 콘세르타시온 정부의 FTAA와 주요 쟁점
- III. 칠레 시민사회의 대응과 공정무역 실천
 - III.1. 국내 시민사회의 조직적 대응전략과 한계
 - III.2. 국내 시민사회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확대: FSC
 - III.3. 칠레의 공정무역 NGO 실천: 민중중심의 자립적 공동체의 실험
- IV. 결론: 문제와 전망

* 논문은 2006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23-B00024). 이 연구는 2008년 12월 한성대학교에서 개최한 한국 라틴아메리카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1차 발표하였으며 이때 귀중한 논평과 토론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Nam-Sup Lee(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Department of Humanity & Social Science, lns@hanil.ac.kr), "FTAA and Alternative Social Movement in Chile: Case of economic NGO movement for Fair Trade".

I. 서론: 연구의 목적과 방법

I.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칠레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자유무역협정(Tratado Libre del Comercio: TLC, 영문 약자로는 FTA이며 이 글에서는 FTA를 사용함)을 많이 맺어왔다.¹⁾ 칠레는 교육, 의료, 주택 등 각 분야에서의 민영화 과정을 대외시장개방정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신자유주의 대외개방정책의 핵심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좌파와 중도우파의 민주연합체인 콘세르타시온(Concertación de Partidos por la Democracia)정부가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민주연합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을 주도한 NGO단체는 ‘공정무역을 위한 칠레동맹’(Alianza Chilena por un Comercio Justo y Responsable: ACJR)과 ‘칠레사회포럼’(Foro Social Chileno: FSC)이다. ACJR과 FSC는 시장개방과 미주 자유무역지대(Area de Libre Comercio de las Américas: ALCA/ 영어 원문은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이 글에서는 FTAA로 통일하여 사용함)의 확대과정을 비판하는 칠레의 대표적인 대안적 NGO 경제운동단체이다. ACJR과 FSC가 이룬 최대의 성과는 민주연합정부가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어떻게 좌파가 참여한 민주연합정부가 신자유주의개방정책의 핵심전략인 자유무역협정을 그렇게 많이 체결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 무역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의 협조를 어떻게 수렴하였는가 하는 점이 또 다른 의문점이다. 대안적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칠레의 시민사회운동이 정부의 신자유주의 대외개방정책에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 20년간 추진한 민주연합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은 이전 군사독재정부의 신자

1) 칠레의 자유경제통합협정(FTA)은 1993년 베네수엘라와 ECA 체결 이후 2007년 일본과의 FTA 체결까지 총 48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9개국과 ECA를 서명하였다.

유주의 개방정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신자유주의 대외개방정책의 핵심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민주연합정부와 시민사회의 주요한 쟁점은 무엇인가? 시민사회의 대안적 경제 NGO 운동의 특징과 한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칠레시민사회의 대안적인 경제 NGO 운동의 논리와 대응전략 그리고 문제점을 이해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분석이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구성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게 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2장에서는 먼저 콘세르타시온 정부하의 대외개방정책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그다음 FTAA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입장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칠레정부의 대외개방정책과 FTAA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을 공정무역을 위한 경제 NGO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려 한다.

1.2. 연구의 이론 및 방법 그리고 선행연구검토

이 연구를 위한 이론적 관점으로 필자는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의 입장을 취한다. 대안사회운동이란 신자유주의 정책을 부정하고 공동체의 원리를 강조하는 운동의 담론과 운동주체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운동을 의미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대안사회운동은 서구의 사회운동과 달리 비계급적이고 비정당적이나 탈정치적인 것은 아니다(Calderón 1995; 조돈문 1995; Eckstein 2001; 권태환/임현진/송호근 2001).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공정무역을 위한 칠레의 경제 NGO 운동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 경제 NGO 운동은 대안사회운동의 여러 영역의 하나이지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분석의 초점은 경제 NGO 운동의 대안적 성격을 담론과 실천적 사례를 통해 규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경제 NGO 운동이 주요 설명변수이고 칠레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은 피설명변수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분석단계는 다음과 같다. 칠레 경제 NGO 운동의 이론적 대안담론은 먼저 FTAA의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 과정에

서 살펴보고(II 장), 그 다음 조직적 대안은 국제적 연대활동의 분석(III 장)을 통해 검토하고, 구체적 대안은 소규모 공정무역 NGO 운동의 실천을 통해 확인한다(III 장). 여기서 소규모 공정무역 NGO 운동 사례의 분석은 대안사회운동의 극히 작은 일부이다. 분석의 방법론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분석틀을 사용할 것이다.²⁾ 즉 ‘분석틀 1’은 칠레의 대안사회운동이 주체성과 시민성 그리고 해방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분석틀 2’는 신자유주의 FTAA에 대한 대안사회운동의 대응형태(수용, 저항, 거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분석틀 3’은 대안사회운동의 발전단계별(초기저항, 조직구축, 안정성장, 대안정착단계) 주요변수(조직내부리더십, 대항세력과의 관계자원, 여타 세력과의 관계지지의 폭, 국가와의 관계, 지배구조와의 관계)를 검토한다.

칠레의 경제 NGO 운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다만 대안적 경제 NGO의 사례로 분류되는 공정무역운동에 대한 해외의 연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공정무역 자체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기반한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문제제기를 넘어 시민사회 차원에서 공정무역네트워크를 형성해 구체적인 대안적 무역시스템을 실천해 가는 입장이다. 이 두 입장은 이론적 전제에서는 대체로 일치하기도 하나 실천적으로 독립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들 안에도 전면적 부정에서 부분적 수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가령 초스도프스키(Chossudovsky 1997), 마르틴과 슈만(Martin y Schumann 1997), 스티글리츠(Stiglitz 2006), 페트라스와 벨트마이어(Petras y Veltmeyer 2003)의 연구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전자보다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하다. 그럼에도

2) 여기서 사용하는 ‘주체성’이란 운동의 자율성을 의미하고, ‘시민성’이란 탈계급성을 의미하며, ‘해방성’이란 근대의 거대담론을 비판하는 일상의 구체적인 해방을 의미한다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연구팀 2006, 2).

불구하고 최근에 발표한 스티글리츠와 찰튼(Stiglitz y Charlton 2007)의 연구와 리트비노프와 메디레이(2007)의 연구는 공정무역에 대한 풍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가 활발한 해외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의외로 빈약하다. 국내에서 세계화 또는 지구화에 대한 찬반논의를 다루는 연구는 많이 있다(김경원/임현진 1995; 조명래 2009). 그러나 공정무역 주제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³⁾ 간접적인 차원에서 김원호(2005), 조돈문(2006), 이내영(2006)의 연구가 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이내영의 연구가 미주의 대륙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무역협정과 반세계화운동을 분석하고 있으며 칠레사례를 연구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의 조사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지난 겨울방학 중에 현지조사방문을 하였다.⁴⁾ 지난 현지방문에서는 전문가집단과의 면담보다는 주로 1차 자료의 수집과 남부의 농촌과 북부의 광산과 수출자유지역(Zofri) 현장방문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의 분석 범위는 1990년에서 2006년까지의 시기이다. 민주연합정부의 시기는 1990-2010년까지 해당하나 바첼렛(Bachelet) 정부의 임기가 시작하는 첫 해로 제한한다.

3) 최근에 개론적 차원에서의 소개문헌이 출간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판테어 호프/니코 로진 2008; 박창순/육정희 2010; Fair Trade Advocacy Office 2010).

4) 필자는 지난 2008년 1월 28일에서 2월 13일까지 칠레 현지조사 방문을 하였다. 북부의 수출자유지역(Zofri)과 광산지역 그리고 칠레의 제2의 도시이자 남부의 산업도시인 콘셉시온과 남부 원주민지역을 방문하였다.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FLASCO와 칠레국립대학과 가톨릭대학을 방문하였고 이를 통해 1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II. 민주연합정부의 대외개방정책과 FTAA

II.1. 민주연합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의 특징

칠레경제의 특징은 민주연합정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대외개방 정책을 취해 왔다(Drake y Jaksic 2000; Larrain 2005; Meller 2007; Ffrench-Davis 2008)는 점에 있다. 피노체트 군사정부 시절 칠레의 경제발전전략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발전모델에 기반한 수출 중심 경제성장전략이었고, 이러한 수출 중심 성장전략은 민주정권하에서도 경제정책의 핵심 원리로 지속되었다(조돈문 2006, 70).

그러나 군사정부와 민주정부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었다. 즉 피노체트 군사정부는 라틴지역과 고립하는 “폐쇄적인” 수출주도형 정책을 추진하였다. 가령 피노체트정부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지역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을 때 이러한 경제블록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칠레는 1969년 안데스공동시장(ANCOM)의 창립회원국이었으나 ANCOM이 민족주의적 경제정책을 취하면서 1976년에 탈퇴하였다(김원호 2005, 90).

이와 달리 민주연합정부는 세계와 통합하는 “개방적인” 수출주도형 정책의 추진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를 두고 이 시기 칠레의 자유화 정책은 일방적(unilateral)이었다면, 1990년대의 개방과 자유화는 양자간(bilateral), 지역적(regional), 다자간(multilateral) 자유화의 통합이었다고 지적한다(문남권 2007, 7). 이와 달리 칠레의 경제학자들은 칠레의 이러한 자유화와 개방화 정책을 “칠레경제의 초국가화(transnacionalización)” 현상이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한다(Fazio 2000). 칠레의 산업구조는 광산업과 제조업이 중심이며 수출형 산업구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90년대의 평균 수출증가율이 8.0%로서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GDP 증가율) 5.5%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표 1> 참고).

<표 1> 칠레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 현황(1990-2006)

	1990-1993 Aylwin	1994-1999 Frei R.T.	2000-2005 Lagoss	2006 Bachelet	1990-2006 Concertación 평균
경제성장률	7.7	5.4	4.3	4.0	5.5
수출증가율	9.6	9.7	5.9	4.2	8.0

출처: Ffrench-Davis 2008, 26; 조돈문 2006, 78

또 칠레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GDP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데서 확인된다. 이러한 이유로 칠레의 경제학자는 수출은 칠레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평가하였다(Ffrench-Davis 2008).⁵⁾

여기서 문제는 수출 중심 경제성장전략이 아직도 천연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광업과 농업생산물이다. 광업의 경우 대부분 원자재(구리와 초석)가 다수이고 농업 생산물의 경우는 과일(포도)이 다수이다. 즉 수출 품목을 천연자원, 천연자원 가공품, 제조상품으로 대별하여 수출 총액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표 2>와 같이 1989년과 1998년 사이 천연자원은 26.3%에서 30.5%로 증가했고, 천연자원 가공품은 66.3%에서 55.5%로 감소했다(조돈문 2006, 78).

<표 2> 칠레의 수출품목 유형별 수출액 점유율(1989-1998)

수출품목	1989(%)	1999(%)
비가공 천연자원	26.3	30.5
천연자원 가공품	66.3	55.5
제조업 제품	7.5	14.0
전체	100.0	100.0

출처: Ffrench-Davis 2002, 177; 조돈문 2006, 79에서 재인용

5) 칠레경제에서 수출발전모델의 역사는 오래된다. 이러한 이유로 한 경제학자는 칠레의 수출발전모델에의 소명의식이라고까지 명명하였다(Salazar 2002, 11).

칠레의 수출중심 경제성장에 의해 희생되는 것은 내수시장에 기반한 제조업이다. 칠레의 GDP에서 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8.9%에서 2002년 8.2%로 조금 하락했으며, 제조업은 같은 기간 17.5%에서 16.0%로 감소하여 광산업에 비해 감축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취업인구의 산업별 분포로 보면 서비스 산업 부문이 팽창(14-31%)하는 반면 제조업은 감소(17-14%)내지 정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조돈문 2006, 81). 칠레가 노르딕모델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고도의 기술력이 요청되는 제조업 분야 수출품의 참여도는 매우 낮다(Castells 2006, 92).⁶⁾ 수출 주도 경제발전 전략에 따른 산업간 불균형은 지역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100개의 칠레”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역간 불균형은 심각하다(Falabella y Galdames 2002, 195).

피노체트 정부의 자유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시카고 보이즈를 중심으로 한 기술 관료가 주도하였다면, 민주연합정부의 개방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기민당 정부 하에서 만들어졌다. 1990년에 민주연합정부는 기업과 노동계와 칠레의 개방정책에 대한 기본합의원칙을 타결하였으며, 1992년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시민대외관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확대와 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를 위해 칠레의 개방화 전략이 치중한 분야는 자유무역협상이었다. 칠레는 1993년 6월 베네수엘라와 FTA를 체결한 이후 전 세계 48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005년에는 FTAA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민주연합정부는 칠레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흥미 있는 현상은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였다면, 칠레의 노동계 특히 노동자연합중앙회(la Central Unitaria de Trabajadores: CUT)가 NAFTA 협상과정에 참여할 것을 주장했다는 점이다(김원호 2005, 94).

6) 노르딕 모델이란 국가규모가 작고 세계시장의 진입이 늦은 반면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초기에는 원재료만을 수출하지만 점차 이들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전략으로 옮겨가는 북부 유럽 국가들의 전략을 말한다(조돈문 2006, 81에서 재인용). 카스텔은 칠레의 대안적 경제발전모델로 노르딕 모델의 대표적 국가인 핀란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Castells 2006, 95-104). 다른 한편, 뮈노스는 소규모기업의 경제적 발전전략으로 클러스터(Cluster)모델을 제시한다(Muñoz 2007, 194-198).

칠레의 콘세르타시온 정부가 중도좌파와 중도우파의 민주연합정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주연합정부의 개방화전략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좌파정부와 비교할 때 독특한 길을 보여주고 있다. 콘세르타시온 정부는 피노체트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개방전략을 부정하지 않고 지속하였다. 현재 반신자유주의 세계화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비제도권) 좌파 운동은 신자유주의 개방화전략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칠레의 제도권 좌파운동은 신자유주의 개방화전략을 반대하지 않고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이유에 대해, 카스텔에 의하면, 칠레민주정부는 과거 군사정부가 추진한 “배재적인 자유주의-권위주의 발전모델”과는 다른 “포용적-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발전모델”이라고 설명한다(Castells 2006, 57-58). 이러한 이유로 칠레 시민사회는 민주연합정부의 신자유주의 대외개방정책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협력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민주적인 참여를 고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II.2. 콘세르타시온 정부의 FTAA와 주요 쟁점

칠레의 민주연합정부가 추진한 자유무역협정은 상당히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FTAA이다. 왜냐하면 이 FTAA가 칠레의 민주연합정부와 시민사회의 분명한 입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쪽이 공개적으로 대화를 진행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⁷⁾ 공식적으로 1990년 11월과 2001년 4월에 걸쳐 두 번의 자문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시민사회 측에서는 ACJR이 주관하여 각 계층을 대표하는 12개의 경제 NGO 단체들이 참여하였다(Rojas 2002, 33).⁸⁾ FTAA의

7) 칠레정부가 시민사회의 여론수렴을 위해 공식적인 대화를 추진한 사례는 이외에도 2001-2002년에 실시한 제3차 미주정상회담에 대한 자문회의이다(Milet y Sanbuena 2002).

8) 이 회의에 참여한 NGO들은 학계, 환경, 서비스분야, 무역 분야, 시장분야, 농업과 투자분야를 대표하는 경제 NGO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다음과 같다: FLACSO-Chile, RECHIP, CIPMA, ASONG, Federación Nacional de Mujeres de Negocios y Profesionales de Chile, PARTICIPA, ACJR, Plataforma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Capítulo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살펴보면 크게 다음 5개 영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반적 원칙과 목표, 협상의 단계와 주요 내용부문; 투자협상 부문; 서비스협상부문; 시장접근에 대한 협상부문; 농업협상부문.⁹⁾

II.2.1. 협정의 전반적 원칙과 목표, 협상의 주요 내용부문

II.2.1.1. 정부입장

협상의 전반적 원칙과 목표에 대하여 2000년 라고스(Lagos) 정부를 대표하는 대외경제관계(DIRECON)원장인 오스발도 로살레스(Oswaldo Rosales)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¹⁰⁾ 칠레정부는 평등함이 있는 경쟁과 지속 가능한 환경의 문제를 연계하려 하였다(Lara 2000, 19). 칠레정부는 단지 국제협약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 부분에서도 이러한 시민사회와의 협의과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공동적인 노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II.2.1.2. 시민사회입장

협상의 전반적 원칙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은 정부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협상의 목표와 단계 그리고 주요 내용부분에서 시민사회는 정부입장과 다르다. 생태정책연구소의 베르나르도 레예스(Bernardo Reyes)에 의하면 시민사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 번째로 시민사회는 무엇보다 협상의 시기를 서두르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는 그동안 이 협상과정에서 배제되어왔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부족, 분석 자료와 정보의 부족은 핵심주제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는 협상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였다. 정보접근과 분석능력함양에 있어 정부와 동등한 자격을 요

Ciudadania Chile, Colegio de Ingenieros de Chile, Defensores del Bosque Chileno, Corporación Participa.

9) 이외에도 공공부문 구매부문, 소규모 경제부문, 시민사회 대표부문을 다루었다. 여기서 소규모 경제부문은 경제규모가 작은 소규모 국가를 말하며 이들 국가에 대한 협정조건을 배려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10) 라고스정부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Fazio 2005; Salazar 2006).

구하였다. 세 번째로 협상내용에 있어서 그동안 칠레가 다른 나라와 맺은 무역협정의 정보 공개 외에 노동문제, 사회문제, 문화문제 그리고 환경문제의 엄격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II.2.2. 투자협상부문

II.2.2.1. 정부입장

DIRECON의 안나 노비크(Ana Novik)에 의하면 투자협상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칠레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훨씬 많다. 가령 “자본시장의 자유화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Stiglitz y Charlton 2007, 121)고 주장하였다. 칠레정부는 자본시장의 자유화로 인해 유입되는 투기자본의 횡포를 감시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칠레정부는 국내기업과 차별할 수 없다. 그러나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 안정과 노동문제를 협상내용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칠레정부는 노동문제와 환경문제를 엄격히 요구할 것이다. 이점에서 칠레국가의 조정자역할의 상실 내지 제한은 없을 것이다(Lara 2000, 30).

II.2.2.2. 시민사회입장

ACJR의 마누엘 이달고(Manuel Hidalgo)에 의하면 투자협상 부문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투자협상 부문에 대해 국민과 정부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합의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가 없다.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이 부재하고, 오직 기업가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프로젝트만이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정책 부재 속에서 협상을 할 경우, 칠레는 세계화라는 게임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는 국내투자의 보완이 될 것이라는 명제 부질없는 것임이 증명되었다. 오히려 외국인투자는 국내투자를 실종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외국인투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것의 예는 1982-1983과 1994년의 멕시코위기, 1997-1998년의 아시아위기에서 입증되었음을 강조

한다. 특히 금융부문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심각한 실업문제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였다(Lara 2000, 35). 한 공정무역 연구자에 의하면 칠레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투기자본의 자유화는 칠레 사회의 경제적 불안정과 빈곤의 증가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Stiglitz y Charlton 2007, 205).

II.2.3. 서비스협상부문

II.2.3.1. 정부입장

서비스협상부문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매우 긍정적이다. DIRECON의 프란시스코 프리에토(Francisco Prieto)에 의하면 서비스 부문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국내생산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는 생산조직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Lara 2000, 40). 가령, 관광업, 교육, 건강부문에서 서비스 업종의 증가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II.2.3.2. 시민사회입장

그러나 서비스협상부문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장은 정반대이다. ACJR의 클라우디오 라라(Claudio Lara)에 의하면 정부의 이 주제에 대한 기본개념과 제안에는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 먼저 재산부분과 서비스부분을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구분이라고 제기한다. 왜냐하면 현대의 생산품은 재산과 서비스의 경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선진국과 저발전국의 서비스의 차이이다. 저발전국의 대부분은 북의 선진국으로 서비스를 수출하지 못한다(Lara 2000, 46). 서비스의 자유화는 무엇보다 선진국을 위한 기회의 확대를 함축한다. 서비스는 산업화 과정의 부분이자 결과이다. 산업화 단계 없이 서비스의 수입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논리도 없고 역사적 정당성도 없는 문제이다. 특별히 금융부분 서비스는 굉장히 심각하다(Lara 2000, 47).

II.2.4. 시장접근에 대한 협상부문

II.2.4.1. 정부입장

시장접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긍정적이다. DIRECON의 안드레스 레보예도(Andrés Rebolledo)에 의하면 이 주제와 관련하여 칠레는 199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이웃 국가들과 많은 협정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또 이미 칠레는 북부지역인 이키케(Iquique)에 자유무역지대를 지니고 있다.¹¹⁾ 이때까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상에서 유일하게 체결하지 않은 나라가 미국이었다. 따라서 최근 5-6년 사이 칠레의 대외수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정이 필요하였다. 80년대와 90년대의 유일한 차이점은 원산지 표기 문제이다. 이 주제는 협상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의 접근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새로운 점은 수출업자 자체의 원산지 증명이다. 과거에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 여기서 수출자유지역 개설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루어진 주제는 과세, 비과세부분, 원산지, 세관, 기술적 장애부분이다.

II.2.4.2. 시민사회입장

이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ACJR의 프란시스코 와우티에스(Francisco Wautiez)는 ‘칠레는 이미 30년 이전부터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데 왜 더 많은 자유무역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부터 제기한다(Lara 2000, 54). 누가 이러한 자유무역에 적합한가? 칠레는 30년 이상 자유무역을 하고 경제성장을 하였는데 수입의 분배는 더욱 불공평하게 이루어졌다. 부유한 계층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 칠레의 부자가 10년 사이(1987-1996) 부의 43%를 차지하였다면, 가난한 계층은 단지 1.5% 만을 차지하였다(Fazio 2000, 48-49). 생태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역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확대하는 것

11) 칠레에는 두 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있다. 북부 이끼계 지역의 수출자유지역과 남부 푼타아레나스의 수출자유지역(Paranezon)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칠레의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Zofri 지역에 대한 조경진(2005)의 연구가 유일하다. 조경진은 Zofri 지역의 생활상에 대한 인류학적 분석을 하였다.

을 의미하며 자국 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한다. 칠레는 제2의 수출단계를 거쳤지만 이륙 또는 도약단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Lara 2000, 55). 고용의 측면에서 수출부분의 고용은 크지 않다. 이 부분의 고용은 칠레 전체의 고용에서 단지 1.6%에 불과하다. 갈수록 수출분야로 전문화되어가는 농업부분의 고용은 1990년에 전체고용의 20%를 차지하였다면 1997년에는 14%로 감소하였다. 산림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1987년과 1994년 사이 수출산림업의 증가율은 130%라는 엄청난 비중이지만 이 분야의 고용은 7% 감소하였다. 고용의 질은 더욱 심각하다. 세계화는 노동협약의 유연화로 인해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 또 다른 문제는 임금의 수준이다. 대외수출로 향한 칠레경제의 방향은 임금의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하였으며 임금의 분배는 더욱 불공평해졌다(Lara 2000, 56). 즉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나 노동자의 임금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

II.2.5. 농업협상부문

II.2.5.1. 정부입장

농업협상부분에 대한 칠레정부의 입장은 수출보조금 정책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농림부의 세르히오 라모스(Sergio Ramos)에 의하면 칠레정부는 수출보조금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한다. 칠레정부에 의하면 수출부분에 대한 보조는 중요하지 않다(Lara 2000, 77). 왜냐하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칠레는 그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II.2.5.2. 시민사회입장

정부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시민사회의 입장은 정반대이다. GEA/RIAD/ACJR의 오스카 토레스(Oscar Torres)에 의하면 칠레의 수출지향의 농업은 다변화되어야 한다(Lara 2000, 83). 왜냐하면 농업은 칠레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삶에 아직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식량기구와 유엔에 의하면 세계농업생산량은 갈수록 줄어들어가고 있다면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 국제 농산물

가격은 자유무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무역협상은 농민들의 이익과 깊이 연관하여 논의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Lara 2000, 81).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스정부는 시민사회와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의 결핍이 우려된다. 칠레농업의 부족한 점은 기술의 갱신과 대기업의 기술근대화 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 저가공 농산물에 집중된 수출 특징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Lara 2000, 83). 농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농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또 다른 심각한 도전은 농촌지역의 자연자원 보호, 공기오염, 물의 오염, 자원의 상실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는 농업기구의 갱신이 필요하다. 농업부분의 협상에서 민주주의 프로젝트의 심화를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참여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Lara 2000, 84).

FTAA의 주요쟁점에 대해 정부와 경제 NGO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의 입장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경제 NGO는 신자유주의 FTA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출하였다. 따라서 민주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칠레정부는 경제 NGO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의 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앞에 정부는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내부 보수 세력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FTAA를 지연시킴으로써 좌파와 시민사회의 입장을 배려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시민사회가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NGO로 대표되는 칠레의 시민사회는 한편으로 국내적 조직 활동을 전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였다.

III. 칠레 시민사회의 대응전략과 공정무역 실천

FTAA에 대한 칠레시민사회의 초기 반응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하였다. 가령 생태주의자의 입장에서 라틴은 FTAA 또는 경제의 초국가화는 국내 농업과 중·소규모 기업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극단적으로 비판하였다(Quevedo Méndez 2003, 228). 또 이와 반대로 칠레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인 CUT는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긍정적인 지지를 하였다(김원호 2005, 94). 대체로 칠레 시민사회의 대다수는 극단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기에는 현 집권정부가 시민사회를 이해하는 민주적인 정부라는 사실에 기인한다.¹²⁾ 칠레의 콘세르타시온 정부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정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FTAA에 대한 정보공개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초기단계에서 시민사회의 반응은, ACJR이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그 다음 FSC가 연대하여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는 정부가 FTAA를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성급하게 체결하는 것을 지연시켰고, 정부도 시민사회와의 민주적인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설득해나가려 했다고 볼 수 있다. FTAA에 대한 칠레시민사회의 대응전략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국내 시민사회의 조직적 대응; 2) 국제적 연대 활동의 영향; 3) 대안적 공정무역운동의 실천. 이 가운데서 첫 번째 두 가지 요인은 FTAA에 대해 칠레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제 이점을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보자.

12) 라틴아메리카에서 FTAA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수렴한 정부는 칠레가 가장 활발하다. 멕시코의 우파정부는 기업의 입장만을 반영할 뿐 시민사회의 입장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FTAA의 시민분과위원회(CRG)에 접수된 75건의 시민단체의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24건(31%)이 칠레에서 왔다면, 멕시코는 겨우 2건을 제출하였다(Rojas y Pcy 2002, 31-32).

III.1. 국내 시민사회의 조직적 대응전략과 한계

칠레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은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칠레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조직적 대응이 바로 ‘공정무역을 위한 칠레동맹’(ACJR)의 창립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 칠레에서 공정무역운동은 새로운 것이었다. 공정한 대외무역과 관련한 NGO 단체는 이미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었다.¹³⁾ ACJR은 이들 유럽나라와 이웃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국제적 연대를 하면서 대외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칠레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와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대응전략을 구사하였다.

FTAA에 대한 논의는 1991년 ‘아버지 부시’ 정부 때부터 시작하였다. 그때 부시는 ‘아메리카를 위한 주도’(Iniciativa para las Américas)라는 FTAA구상을 전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제안하였으며, 그 후 클린턴 행정부가 2001년 마이애미(Miami)정상회담으로 발전시켰다. 이때 칠레에서 FTAA과정에 대응하는 두 개의 중요한 NGO가 출현하였다. 하나는 ‘참여기구’(Coporación Participa)이고 다른 하나는 ‘대륙간 사회동맹’(Alianza Social Continental: 이하 ASC)이다. ASC는 미주 지역의 정부 간 공식정상회담에 대응하는 민중정상회담을 소집하였다. ASC의 칠레조직은 ‘민중 주도를 위한 칠레연맹’(Red Chile de Acción por una Iniciativa de los Pueblos: RECHIP)이었으며, 1991년에서 1999년까지 활동하였다. 이 단체는 그 후 ‘공정무역을 위한 칠레동맹’으로 재조직되었다. RECHIP는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칠레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TLCAN/ NAFTA)의 확대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하던 90년대 중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ACJR은 RECHIP와 연관 있는 조직과 인적 자원으로 나타났다. ACJR은 대륙의 사회

13) 유럽의 공정무역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는 EFTA(European Fair Trade Association/ Asociación Europea de Comercio Justo)이다. 이 단체는 유럽 9개 나라의 12단체 협의체이다. 이 단체는 공정무역현황에 대한 격년 간 보고서(Anuario)와 잡지 *Imagina*(Un mundo sin fronteras)를 발간하고 있다. 이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www.eurosur.org, www.reasnet.com

적 동맹의 칠레판으로 변화하였다. 다른 한편, ACJR은 ASC의 부분으로서 캐나다의 퀘벡에서 발전한 제2차 민중정상회담에서 발전된 논의와 조직에 참여하였다(Rojas y Pey 2002, 23). 이러한 참여는 시민사회단체가 이 주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참여전략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1997년에는 브라질의 벨루 오리존치(Belo Horizonte)에서 개최된 FTAA 통상장관회의와 비슷한 시민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수많은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륙차원의 사회적 동맹인 ASC의 결성과 공동의 행동전략을 작성하였다. 이리하여 약 2000개의 NGO 단체를 대표하는 제1차 민중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FTAA를 위한 협상을 위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미주대륙을 위한 대안적 문서’(Alternativa para las Américas)를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ACJR은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RECHIP과 연관된 단체와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탄생하였다.

ACJR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폭넓은 동맹의 구축과,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국가와 국제기구를 포함한 공공기관과의 협력적인 관계의 유지를 창립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출현하였다. 이후 ACJR은 ASC의 칠레판이 되었다. ACJR은 1999년 제3차 FTAA 캐나다 정상회담 때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다양한 행동의 전개를 통해 FTAA협상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를 위해 ACJR은 한편으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화채널을 만들고 이의 활성화를 고무하는 적극적 전략을 채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ACJR은 캐나다정상회담 의제에 시민사회의 제안을 포함하게 하는 활동전략을 병행하였다. 이 결과 2001년 1월 Miami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공식의제에 처음으로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만남이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서 칠레 NGO(ACJR)는 다른 나라의 NGO와 달리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Rojas y Pey 2002, 25). ACJR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여론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부와 협조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와 학계와 공동으로 청

문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였다.

칠레의 시민사회는 1990년 초 민주연합정부 수립이후 거의 20년간 지속적으로 민주연합정부의 대외개방정책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시민사회의 여론을 정부와 국제기구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점이 칠레의 민주연합정부 하에서 그렇게 많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시민사회의 극단적인 반대 없이 가능한 이유였다고 볼 수 있다. ACJR이 이룬 최대의 성과는 칠레의 민주연합정부가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여론을 부분적으로나마 수렴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와의 협력관계가 긴밀하기는 하지만, 농업부분 협상문제의 경우처럼 대안적 국제무역의 내용을 자유무역협상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ACJR이 대안적 국제무역 네트워크 구축 노력은 미약하지 않는 가라는 문제를 지적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베르가라는 민주연합정부의 민주적 여론 수렴과정을 단순한 수사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Vergara 2003, 413-414).

III.2. 국내 시민사회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확대: FSC

칠레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안사회운동의 특징은 활발한 국제적 연대활동에 있다. FTAA에 대한 대응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멕시코와 콜롬비아 우파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인 FTAA협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좌파정부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대안적 경제협력기구를 추진하고 있다. 가령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주도하는 FTAA에 대항하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주도하여 2004년 12월에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비안대안’(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s Américas: 이하 ALBA로 약칭함)을 조직하였다.¹⁴⁾ 이와 달리

14) ALBA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인 차베스가 2001년 12월에 열린 제3회 카리브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제기하였으며, 2004년 말에 조직된 이후 2009년 현재 베

칠레의 콘세르타시온 정부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즉 2006년 3월 미주국가회의(OAS)에서 멕시코 대통령이 중남미의 대다수 국가들이 FTAA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협정 체결을 서둘렀다면, 칠레정부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정부와 함께 FTAA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협정 체결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로 인해 FTAA는 합의되지 않았고 미국이 주도한 FTAA 체결은 당분간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이 쿠바를 중남미 국가의 사회경제협력 체제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FTAA에 대하여 칠레를 포함한 중남미 11개 국가들이 쿠바와 쌍무협정을 맺은 사실에서 확인된다(López Villafañe y Rafael Di 2002, 291).¹⁵⁾

ALBA는 1995년에 설립된 남미 경제통합운동인 ‘메르코수르’(Mercado Común del Sur: Mercosur)보다 분명한 대안적 성격을 표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메르코수르는 회원국가가 당면한 사회문제나 사회적 불평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메르코수르는 10년이 지난 뒤인 2004년에 ‘사회 연대적 메르코수르 프로그램’(El programa MERCOSUR social y solidario)을 조직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와 달리 ALBA는 설립 초기부터 회원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문제해결 방식을 택하며 인간 삶의 기초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ALBA는 NAFTA와 FTAA가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과 다른 대안무역정책을 제시함으로 제3세계의 남남연대와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칠레정부는 ALBA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안데스공동체 가맹국과 메르코수르 가맹국, 그리고 카리브지역의 3개 국가 등 총 12개 국가 연합체인 ‘남미국가공동체’(Comunidad Sudamericana de Naciones; CSN 또는 CASA)와 ‘남미국가연합’(UNASUR)에 가입하여 지역협력 체계에 참여하였다.¹⁶⁾ 또한 칠레의 민주연합정부는 대외수출의 다변

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아르헨티나 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5) 기독교민주당이 주도하던 칠레의 민주연합정부는 1999년에 쿠바와 쌍무협정을 체결하였다.

16) CSN은 2004년 12월 페루의 쿠스코에서 개최된 제3차 남미 정상회담에서 12개 국가

화를 추진해왔다. 가령 피노체트정부 시기에는 대외무역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면, 민주연합정부 시기에는 미국과 유럽보다는 인근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관계를 증대하였다(Ffrench-Davis 2008, 268). 이것은 칠레의 대외 지역별 수출비율에서 유럽과 미국 의존도가 감소하고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관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아시아 국가를 모두 포함할 경우 칠레의 대외지역별 수출비율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표 3>을 참고).

<표 3> 칠레의 주요 대외수출국 비중(1983-2005)

연도 \ 국가	중남미	유럽	미국	아시아	일본	중국	기타
1983-1989	14.9	36.8	20.8	5.6	11.5	2.3	8.1
1990-1995	18.1	29.3	15.0	11.8	17.8	1.5	6.6
1996-2000	22.1	24.6	15.9	12.2	15.3	3.2	6.7
2001-2005	20.0	23.9	17.3	9.5	11.8	8.8	8.8

출처: Ffrench-Davis 2008, 268에서 재구성

미국이 주도하는 FTAA에 대항하는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의 대안적 국제연대에 대한 칠레정부의 신중한 입장과는 반대로 칠레의 시민사회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1990년대에 칠레의 시민사회는 국제적 연대활동에 영향을 받아 국내조직을 전개하였다면, 2000년대에 와서는 국제적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칠레사회포럼(FSC)이다. FSC는 ACJR 이외에 주목할 만한 다른 칠레 시민사회의 대안 경제 NGO 운동이다. 2003년에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에서 개최한 세

의 정상이 조인해 발족된 남미 국가지역공동체이다. CSN은 2019년까지 관세철폐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는 EU와 같은 동일한 화폐와 정치조직을 갖춘 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UNASUR는 2008년 5월 23일 브라질리아에서 남미 12개국 정상들이 유럽연합을 모델로 하여 만든 남미 국가연합체이다(Translatin 2008, 3호, 7)

계사회포럼의 영향으로 2004년에 칠레 시민사회에서 최초의 반지구화운동인 FSC가 출현하였다(Foro Social Chileno 2004, 2).

<표 4> FTAA국가에 대한 칠레의 수출현황(1991-1999)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북미	1692.9	1805.5	1847.1	2294.7	2603.3	2845.3	3217.8	3241.6	3883.7
남미	1195.1	1528.0	1656.0	2126.0	2858.2	2769.2	2981.9	2818.7	2580.0
안데스	425.1	537.5	566.8	773.7	1083.5	1009.4	1118.8	1185.0	1059.8
중미	47.1	61.0	53.5	75.3	64.2	77.5	96.9	99.9	121.9
카리브	10.1	12.2	13.7	14.3	20.3	31.2	29.7	44.4	156.0
중남미 전체	2945.2	3406.7	3570.3	4510.3	5545.9	5723.3	6326.3	6204.6	6741.6
세계 전체	8941.5	10007.4	9198.7	11604.1	16025.2	15404.1	15404.8	16923.4	15914.6
비율	32.9	34.0	38.9	34.6	37.2	37.24	37.7	41.7	42.4

출처: Lara y Pey 2000, 127

FSC는 민주화 이후 8만 명의 시민을 광장으로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FSC는 구조 또는 조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만남의 장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지구화로 인한 자유무역협정, 여성의 관점, 칠레의 주력 수출품인 구리, 청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FSC는 세계사회 포럼의 기본원칙에 근거하면서 세계사회 포럼의 성공적인 사례를 반복하기를 원했다. 즉 FSC는 다원적인 공간이고, 다양하고, 종교적이지 않고, 정부기관이 아니고, 당파적이지 않

왔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동원할 필요를 느꼈다. 또 다른 칠레, 환경과 다양성, 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존중하는 다른 사회를 원하였다. 국민과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미래에 영향을 받는 사건들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들의 운동 방법론은 세계사회 포럼의 방법론을 칠레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였다. 이 방법론은 결정적이거나 당파적인 관점이거나 완성된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하나의 한계일 수도 있다. 사회에 대한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적 모델의 건설을 의미한다(Garcés 2006, 432).

III.3. 칠레의 공정무역 NGO 실천: 민중중심의 자립적 공동체의 실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또 다른 구체적인 대응은 소규모의 공정무역 NGO 단체의 활동에서 나왔다. 칠레의 공식적인 공정무역 운동은 2001년 수도 산티아고에서 가톨릭 NGO 단체가 주최한 연대경제 국제 심포지움을 계기로 연대경제 네트워크가 창립되었다.¹⁷⁾ 그러나 칠레의 공정 무역운동은 이미 그 이전부터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공정무역 NGO가 칠레의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코아스바(COASBA)와 로스 로블레스(Los Robles)의 공정무역 NGO 사례이다. 이 두 사례는 소규모 유기농 협동조합에 기반한 농촌의 공정무역 생산단체로서 민중중심의 자립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무역 NGO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협정과 담론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적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안적 정책과 담론의 제시도 실제 생활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17) 2002년 1월에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11개의 단체가 참여하였다. 2004년에는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이 단체의 방향과 목표가 보다 분명하게 수립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www.ripesslac.net을, 칠레의 공정무역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http://reconomiasolidaria.blogspot.com>과 <http://espaciomercosursolidario.blogspot.com>을 참고할 수 있다.

III.3.1. 코아스바(COASBA): 소규모 유기농 양봉생산자 협동조합

III.3.1.1. 배경과 역사

코아스바는 칠레의 남부지방 바이오비오(Bio-bio)에 있는 작은 지방 도시인 산타바르바라(Santa Barbara)에서 1994년에 소규모 양봉을 하던 농가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코아스바는 초기에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민중중심의 개발 또는 민간의 얼굴을 한 지역 공동체 개발 NGO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코아스바는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칠레의 기독교계통 구호단체에 의해 유럽의 공정무역 단체에 소개되었고 코아스바의 꿀은 지난 5년간 공정무역 인정을 받았다. 현재 코아스바의 회원은 35명이며 시간제로 근무한다(리트비노프와 메달레이 2007, 47-48).

III.3.1.2. 조직과 특징: 독립적 생산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자립공동체의 실현

코아스바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코아스바는 먼저 지역 코아스바 조합을 조직하고 칠레의 대형 공정무역수출 협동조합인 아피쿠프(Apicoop)에 가입한다. 그 다음 그들은 생산물을 아피쿠프에 판매하고 이들은 이것을 다시 유럽의 공정무역업자에 수출한다. 그 후 이들은 이것을 유럽의 초콜렛 공장의 원료로 판매하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다시 이것을 가공하여 유럽의 소비자에게 완성품으로 생산하여 판매한다.

코아스바는 1년에 한 번씩 조합원들에게 목돈을 지급하고, 조합운영을 위해 수익의 1%를 보관하여 이것을 새로운 일거리 창출의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코아스바는 조합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신임, 조합원사이의 신뢰와 상호협조정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코아스바는 대출사업, 직업개발과 직업훈련, 생산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을 실시하였다. 코아스바는 산타바르바라산 꿀이라는 상표를 획득하였고 이를 유기농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 중에 있다. 1999년에는 최신의 꿀 가공 공장과 연구소를 도시에서 가까운 외곽에 설립하였으며, 칠레대학과 산학협동을 맺어 중

자개량과 기술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리트비노프와 메달레이 2007, 50-51). 이들은 코아스바가 전 세계 시장을 향한 독립적인 꿀 수출회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이들은 독립적인 생산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자립공동체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III.3.2. 쿠리코의 로스 로블레스(Los Robles) 포도주 협동조합

III.3.2.1. 배경과 역사

로스 로블레스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남쪽의, 버스로 여러 시간 거리에 위치한 쿠리코(Curico)계곡에 있다. 원래 칠레에는 소수의 포도주 협동조합이 있었다. 그러나 1973년 군사독재 정부가 들어서면서 협동조합을 대부분 금지하였다. 1943년에 세워진 이 협동조합은 당시 살아남은 조합 가운데 하나이다(리트비노프와 메달레이 2007, 128-129).

로스 로블레스가 공정무역과 연결이 된 것은 벨기에의 ‘옥스팜’(OXFAM)¹⁸⁾과 네델란드의 ‘막스 하벨라르’(Max Havelaar)¹⁹⁾와 제휴를 맺으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후 영국, 독일, 스위스 등과 연결되었다. 지금은 독립된 소매업자 및 슈퍼마켓과도 거래하고 있다. 현재 로스 로블레스 포도주의 15-20%가 공정무역 인증을 받았고 서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III.3.2.2. 조직과 특징: 생태사회기금을 통한 자립적 지역사회발전

로스 로블레스에는 중소규모의 포도주 제조 농민 6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규직원은 약 90명 정도이나 수확기에는 비정규직원을 약 250명까지 고용한다. 로스 로블레스의 중요한 활동가운데 하나는 생태사회기금의 조성 사업이다. 이 기금은 공정무역제품 수입업자들에게 받은 사회적 초과 이익으로 조성되고 있다. 생태사회

18) 옥스팜(OXFAM)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에서 설립된 대표적인 국제개발 NGO 단체이다.

19) 막스 하벨라르는 네델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대규모 커피농장의 노동착취를 반대했던 유명한 소설의 제목이다. 이를 기념하여 1989년 네델란드 시민사회는 공정무역으로 인증 받은 첫 번째 상품에 ‘막스 하벨라르’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다(마일즈 리트비노프 2007, 29; Fair Trade Advocacy Office 2010, 26).

기금은 협동조합의 직원과 농민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주변마을과 농촌에 사는 농민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여러 영역의 중요한 활동에 쓰이고 있다. 즉 생태사회기금의 주요 용도는 마을 개선 사업, 기술지원을 위한 대출, 농민들 사이의 교류지원, 저임금 직원의 임금지원과 주택구입 지원이다(리트비노프와 메달레이 2007, 129-130).

이외에도 로스 로블레스는 다른 NGO의 빈곤퇴치 사업과 연대하여 지역 농민들을 지원한다. 가령 마을 통학버스를 구입하여 어린이들의 통학에 사용하거나 저소득층의 주택구입과 건축을 지원한다. 또 지역에 학생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칠레의 사회과학부 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거나, 지역사회의 정보통신보급을 위해 컴퓨터와 프린터를 지원한다.

최근에 로스 로블레스는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였고, 영국의 노섬브리아 대학과 협력하여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리트비노프와 메달레이 2007, 131-132). 로스 로블레스는 유기농 포도주 생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생태사회기금의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를 일으키는 공정무역 NGO의 새로운 자립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III.3.3. 칠레 공정무역 NGO의 공통적 특징

이 두 공정무역 NGO의 공통적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적인 조직적 기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은 단순한 농산물의 원자재 수출에 만족하지 않고 고도의 전문지식의 습득과 기술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 유기농 농업가공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학과 공정무역간 연구와 교육협력 관계를 수립한 것은 기존의 대기업중심의 산학협력의 틀을 갱신하다는 차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조직 활동에 있어서 중앙조직에 종속되거나 지배받지 않고 매우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활활동에 있어 유럽의 공정무역 NGO 단체와 직접 교류를 한다. 다만 교

육과 연구개발 부문에서 중앙의 대학이나 NGO 단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제3세계 NGO들은 인프라와 재정의 취약함으로 인하여 NGO 주요활동의 중앙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편이다. 칠레의 이 두 사례는 대안사회운동의 기본인 활동의 주체성과 조직의 시민성 그리고 활동방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 이 두 단체는 대안사회운동의 또 다른 조건을 지니고 있다. 가령 이 두 단체의 경우 공정무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는 이기적 행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생태사회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다.

IV. 결론: 문제와 전망

지금까지 필자는 FTAA에 대한 대안사회운동의 사례로 칠레의 경제 NGO 운동을 분석하였다. 경제 NGO 운동이 지향하는 대안사회의 이론적 담론은 FTAA의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에서, 대안사회의 실천적 측면은 국제적 연대활동과 공정무역 NGO 실천 사례에서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FTAA 추진목표와 원칙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입장 차이는 극단적일 만큼 분명하였다. 그러나 경제 NGO로 대표되는 칠레의 시민사회는 정부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인 여론 수렴방법을 채택하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즉 적어도 FTAA의 방향과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추진 속도는 지연시켰다. 칠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되어 반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시민사회는 기술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의회는 책임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칠레의 경우 진보적인 정부의 민주적 의견수렴의 의지로 인하여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FTAA 추진목표와 방향과 관련하여 칠레 민주연합정부의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칠레정부는 핀란드와 같은 북부유럽형(노르딕형) 대외수출 전략을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추진한 것은 국내 제조업의 강화보다는 해외자본에 의존한 대외수출주도 전략이었다는 점이다. 칠레정부가 천연자원이 부족한 동아시아 발전모델 대신에 천연자원이 풍부한 노르딕형을 발전모델로 삼은 것은 칠레의 자연적 조건과 일치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미약하다.

둘째, FTAA에 대항한 칠레 시민사회의 대안적 전략인 국내외 연대활동과 공정무역운동이 지닌 특징과 문제점이다. ‘분석틀 1’의 기준에서 볼 때 칠레시민사회의 국내외 연대활동과 경제 NGO의 주체성과 시민성 그리고 해방성간의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틀 2’의 기준에서 볼 때 칠레의 경제 NGO 운동은 FTAA에 대해 수용도 거부도 아닌 저항의 형태를 취하나 대안사회의 기본인 공동체운동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분석틀 3’의 기준에서 볼 때 칠레의 경제 NGO 운동으로 대표되는 대안사회운동은 운동의 안정적 성장단계 또는 정착단계보다는 아직은 조직의 구축단계에 있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안정적 성장 또는 정착단계의 상태를 구성하는 주요변수인 국가와 지배구조와의 관계에서 대안적 정책의 집행에 참여하거나 지배구조의 교체가능성을 논의할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칠레의 대안사회운동은 기존지배구조와 공존하는 상태에서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조직의 구축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칠레 시민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안적 경제 NGO 운동의 전망은 이중적이다. 민주연합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안적 경제 NGO 운동의 추진은 낙관적일 수 있었다. 가령 코아스바와 로스 로블레스와 같은 공정무역 NGO 사업에 대한 지원책에서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기업가 출신인 보수야당 후보의 당선은 이 방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어렵게 한다. 특히 민주주의 피로증과 경제적 욕구의 상승으로 칠레 시민사회가 공정무역보다는 손쉬운 자유무역의 소비시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는 점도 전혀 배재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새로운 현실과 함께 대안적 경제 NGO 운동이 직면한 과제는 칠레의 1차 산업에 치중한 불균형한 산업구조와 이에 기반한 수출산업구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점이다. 수출상품의 다양화 발전전략이 필요한 현실에서 농수산 자원중심의 대안적 경제 NGO 운동은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대안적 경제 NGO 의 공정무역운동은 칠레의 산업간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칠레 시민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하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A에 대항하여 전개한 공정무역을 위한 칠레의 경제 NGO 운동은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사회발전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imed to examine the strategy and problem of the civil society against main positions of the Democratic Government of Chile over the FTAA. In particular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some cases of economic NGO movement for fair trade as one of the alternative social movements in recent Chile.

We tried to analyzed the hot debate between Chile's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ver FTAA. The results show us that Chile's Government want to carrying out FTAA with support of civil society through democratic process. But civil society want to suggest a different way from FTAA. However they have some points in common like they are promoting export model for development like nordic model. The problem of this way is dont have a concrete strategy for the practice of this model. According to our study the economic NGO movement of the civil society for fair trade is an alternative social movement with a balance between concrete citizenship and liberation. But this movement lay at first stage for development.

Even though some problem, the economic NGO movements suggests new possibility of development for alternative society.

Key Words: Alternative Social Movement, Chile Civil Society, Fair Trade, FTAA, NGO / 대안사회운동, 칠레 시민사회, 공정무역, 미주 자유무역협정, 비영리기구

논문투고일자: 2010. 04. 16

심사완료일자: 2010. 04. 27

게재확정일자: 2010. 05. 11

참고문헌

- 권태환/임현진/송호근(2001), 『신사회운동의 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경원/임현진 공편(1995),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
- 김원호(2005), 「칠레의 패러독스: Pre-피노체트 세력의 신자유주의 발전 전략」,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 오름, pp. 71-104.
-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 연구팀(2006), 『2006 연구계획서』, 한일장신대학교 미발표자료집, pp. 1-48.
- 리트비노프와 메딜레이(2007), 『공정무역,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모티브.
- 마르틴과 슈만(1997),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날.
- 문남권(2007), 「칠레의 산업화에서 경제통합 정책의 역할과 효율성에 대한 고찰」, 『중남미연구』, Vol. 26. No. 2, pp. 3-28.
- 박창순/육정희(2010), 『공정무역,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거래』, 시대의 창.
- 이남섭(2005), 「신자유주의시대 칠레 사회정책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대응」, 『신자유주의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변동』, 오름, pp. 157-190.
- 이내영(2006), 「라틴아메리카의 경제통합과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 오름, pp. 157-190.
- 조경진(2005), 「다시 생각하는 자유무역: 칠레 이끼계 자유무역지대에서의 감시문화와 도덕경제의 문제」, 『비교문화연구』, Vol. 11, No. 2, pp. 63-101.
- 조돈문(1995), 「신 사회운동의 이론적 이해: 구미와 중남미의 신 사회운동 비교」, 『경제와 사회』, No. 28, pp. 10-54.
- _____ (2006), 「칠레 민주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신자유주의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변동』, 오름, pp. 67-107.

- 조명래(2009), 『지구화, 되돌아보기와 넘어서기』, 환경과 생명.
- 초스도프스키(1997), 『빈곤의 세계화』, 당대.
- 프랑스 관 테어 호프/니코 로진(2008), 『희망을 키우는 착한 소비』, 서해문집.
- Antonio Garretón, Manuel(2007), *Del postpinochetismo a la sociedad democrática. Globalización y política en el Bicentenario*, Santiago: Debate.
- Calderón, Fernando(1995), *Movimientos sociales y política*, México: XXI.
- Castells, Manuel(2006), *Globalización, desarrollo y democracia: Chile en el contexto mundial*, Santiago: FCE.
- Drake, Paul y Jaksic(2000), *El modelo chileno. Democracia y desarrollo en los noventa*, Santiago: LOM.
- Eckstein, Susan(coord.)(2001), *Poder y protesta popular. Movimientos sociales latinoamericanos*, México: XXI.
- Fair Trade Advocacy Office(2006), *Business Unusual-Successes and Challenges of Fair Trade*, (공정무역연합 옮김, 『공정무역의 힘』, 시대의창, 2010).
- Falabella, Gonzalo y Galdames(ed.)(2002), *Reprensar el desarrollo chileno. País, territorio, cadenas productivas*, Chile: Ed. Universidad del Bio-Bio.
- Fazio, Hugo(1998), *El "tigre" chileno y la crisis de los "Dragones" asiáticos*, Santiago: LOM.
- _____ (2000), *La transnacionalización de la economía chilena*, Santiago: LOM.
- Fazio, Hugo et al.(2005), *Gobierno de Lagos: balance crítico*, Santiago: LOM.
- Ffrench-Davis, Ricardo(2008), *Chile entre el neoliberalismo y el crecimiento con equidad*, Santiago: JCSAEZ Editor.
- Foro Social Chileno(2004), *Genesis, proceso de construcción y resultados*, Cenda.

- Garcés, Mario et al.(2006), *Democracia y ciudadanía en el Mercosur*, Santiago: LOM/Union Europea.
- Lara, Claudio y Coral Pey(2000), *ALCA y Ciudadanía*, Santiago: FLACSO-Chile.
- Larrain Rios, Guillermo(2005), *Chile, Fertil provincia*, Santiago: Debate.
- López Villafañe, Victor y Jorge Rafael Di Masi(2002), *Del TLC al MERCOSUR. Integración y diversidades en América Latina*, México: Siglo XXI.
- Meller, Patricio(2007), *Un siglo de economía política chilena*, Santiago: Ed. Andres Bello.
- Milet, Paz y Andrea Sanbueza(coords.)(2002), *El proceso de consultas a la sociedad civil en la III Cumbre de las Américas*, Santiago: FLACSO-Chile.
- Muñoz Gomá, Oscar(2003), *Hacia un Chile competitivo: Instituciones y políticas*, Santiago: Ed. Universitaria/Estudios.
- _____(2007), *El modelo económico de la concertación, 1990-2005*, Santiago: FLACSO-Chile/Catalonia.
- Petras, James y Henry Veltmeyer(2003), *Globalization Unmasked: Imperialism in the 21st Century*, Canada: Fernwood Publishing.
- Quevedo, Vicky(2003), *Una agenda política sociedad civil: Foro ciudadano II*, Santiago: LOM.
- Rojas A. Francisco y Coral Pey(2002), *Participación de la sociedad civil en el caso Chile*, Santiago: FLACSO-Chile.
- Salazar, Gabriel(2006), “Ricardo Lagos, 2000-2005, Perfil histórico, trasfondo popular,” *Intervenciones*, No. 5, pp. 15-46.
- Salazar, Gabriel y Julio Pinto(2002), *Historia contemporanea de Chile III*, Santiago: LOM.
- Stiglitz, Joseph(2006), *Making Globalization Work*, Norton & Company.
- Stiglitz, Joseph y Andrew Charlton(2007), *Comercio justo para todos*, México: Taurus.

Vergara, Jorge(2003), “El estado y las organizaciones sociales en Chile,”
Polis, Vol. 1, No. 4, pp. 391-424.

FLACSO-Chile, <http://www.flacso.cl>

www.reasnet.com

www.economniasolidaria.org

www.ripesslac.net

www.eurosur.org

<http://redeconomiasolidaria.blogspot.com>

<http://espaciomercosursolidaria.blogspot.com>

Translatin, 2008, 3호